

# 예 방 접 종

## 1. 예방 접종을 받으면 대상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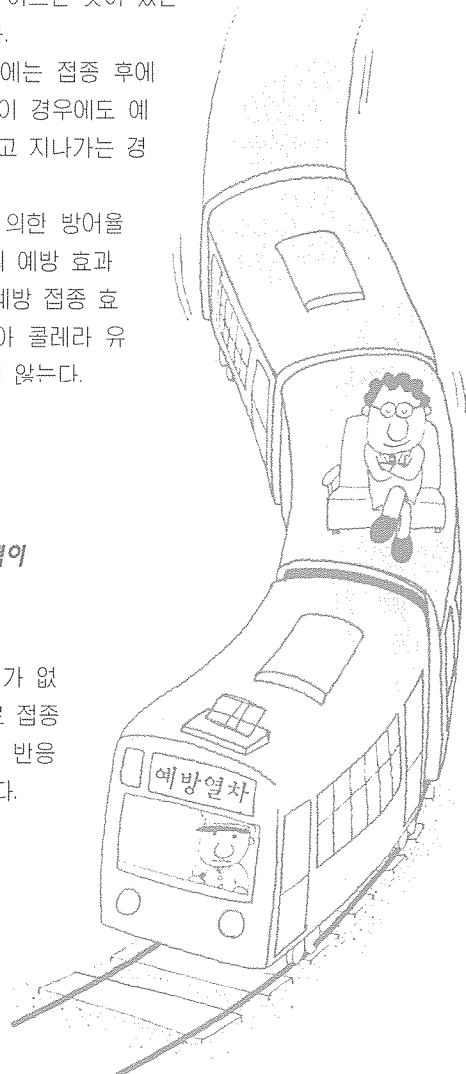
예방 접종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예방이 되고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지만, 예방 접종의 효과가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거의 100%에 이르는 것이 있는가 하면 40~60%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예방 접종 효과가 낮은 경우에는 접종 후에도 해당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쉽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A형 간염의 예방 접종에 의한 방어율은 100%이지만 BCG접종에 의한 결핵의 예방 효과는 40~60%에 지나지 않는다. 콜레라 예방 접종 효과는 더욱 낮아 30~40%에 지나지 않아 콜레라 유행 시에는 예방 접종을 강력하게 권하지 않는다.

## 2. BCG는 접종 후터가 없으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접종 받아야 한다?

BCG의 접종 후터와 면역력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접종 기록이 확실하면 추가로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와 면역력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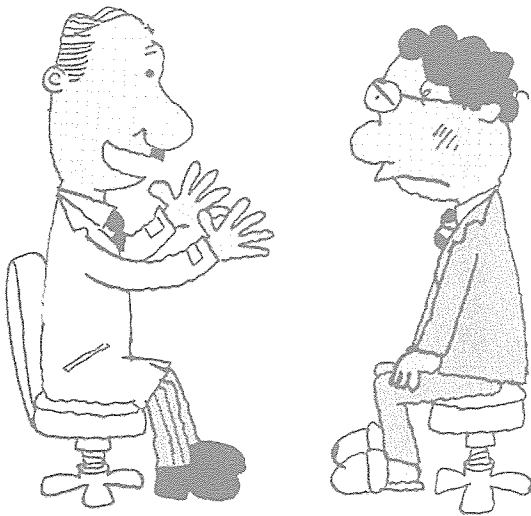


### 3.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접종 후 상당 기간 면역력이 지속되다가 5년쯤 되면 항체 역가가 떨어져 방어 능력이 문제시되기 때문에 5년마다 추가로 접종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접종 후 상당 기간 면역력이 지속되다가 5년쯤 되면 항체 역가가 떨어져 방어 능력이 문제시되기 때문에 5년마다 추가로 접종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 후 많은 연구 결과 면역 체계의 기억 반응에 의해 역가가 떨어져 있더라도 감염이 되면 갑자기 방어하는 힘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므로 최근에는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거나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등 특수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한다.

### 4. 예방 접종 스케줄이 바뀌어 혼동스럽다?



예방 접종에 대한 지식과 시약 개발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도 차츰 저렴해 지는 경향이 있다(예 : B형 간염). 또 시대 상황에 따라 그 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예방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있다(예 : 천연두).

또 예방 접종을 받고 나서도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면 접종 시기와 방법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예 : 홍역).

따라서 이런 시대 상황에 맞게 예방접종의 스케줄이 바뀌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예방 접종 스케줄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생활 이렇게 하자' 에서 발췌>